

# “연내 개헌안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때 투표”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1년**

선거구제와 투트랙 추진  
김이수 관행에 맞게 처리  
국회 선진화법 손질 필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최선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금년에 꼭 (개헌) 합의안을 만들어서 의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는 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면 최선”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취임 1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헌 내용이나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장은 “개헌의 방향은 선거구제와 개헌이 함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라며 “분권이 핵심이다. 분권이 안 되면 개헌이 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인데 충분히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으면 되겠다”면서 “여소야대인데 여야 문제라기보다는 의원 개 개인의 생각이 달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에서의 입법·사법·행정이나 4부 간의 분권, 중앙과 지방의 분권,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하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분권이 중심이 될 텐데 대통령제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내각제로 하느냐는 국회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파들이 합의하면 그것을 존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민생, 안보·외교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민생을 잘 챙긴다고 해서 개헌 여력이 없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투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취임 1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랙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 “국회법과 과거에 확립된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원칙론적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현재로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안건을 직권상정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판단”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정 의장은 “상당히 박한 점수를 받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그래도 법이 없던 것보다 낫고 동물

국회보다 식물 국회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제 하에서 양당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인데 지금은 다당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몸에 맞지 않는 법”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은 그대로 존치 하되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중단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북측이 지금 핵 실험이라든지, 금년 들어 미사일 실험을 10번이나 했다”며 “꼭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국회가 나서고 정부가 노력해 (이산가족 상봉을) 어떻게든지 성사시키려 노력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여야) 4당 대표들이 합의해서 6월 국회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이 대한민국 결정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북측 동의가 있어야 하며, 손바닥도 서로 마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비핵화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얘기하는 것은 때 이른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장기적인 과제로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은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미회담 ‘협치 수행단’ 성사 될까

與 요청에 한국당만 부정적...인사청문 정국 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방미 일정에 여야 의원단 동행을 요청하면서 초당적인 ‘협치 수행단’이 실제로 구성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행보에 야당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이 반대하는 경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이 강행될 경우 야당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회에서 “야당의 원내대표들을 다 찾아뵙고 제안 설명을 드리며 요청했다”면서 “그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부정적 검토’ 의견이었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실제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조급식 ‘온도차’를 보이면서 수행단 합류를 저울질 하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

은 통화에서 “(국회 상황과)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 방미에 들러리로 동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도움이 된다면 동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일단 한국당 외에는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인사청문회 진행경과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상황이 어떻든지 한미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에, 한국당은 국회 상황과 연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을 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 약속 지킨 심상정...광주서 ‘토크 콘서트’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사진)가 13일 오후 7시 광주청소년 삶다디자인센터 다목적홀에서 오후 7시 광주를 방문해 ‘토크 콘서트’를 위한 1분’을 열었다. 콘서트에는 청년, 여성들을 포함해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영상과 함께하는 키워드 토크 형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 진보정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인 6.2%를 얻은 심상정 상임대표는 지난 달 16일부터 약 한 달간 대국민 약속을 다짐하는 ‘약속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대선과

정에서 우리 사회에 조망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를 정치로 이끌어내어 주목받았던 만큼 약속 투어는 대선에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다짐의 성격을 담고 있다”며 “이미 인천, 대전, 제주, 서울, 부산, 경남 등을 거친 약속 투어에서 심상정과 정의당을 향한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보내줬던 청년, 여성들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국민의당, 전대·지방선거 앞두고 활로 모색

강원서 1박2일 워크숍 안철수 불참...강연·자유토론 등

국민의당이 1박2일 워크숍을 열고 진로 모색에 나서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13일 오전 당 회의 등을 예정대로 소화한 뒤 이날 오후부터 1박2일로 강원도 고성군 국회연수원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지역 사무처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다만 대선 패배 후 공개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암종모색’에 들어간 안철수 전 대표는 불참했다. 국민의당이 총집결하는 것은 대선 패배 후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활로 찾기를 위한 것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태일 당 혁신위원장이

‘당을 혁신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당 혁신 방향 및 정국 현안 등을 놓고 격의 없는 논의가 오갔다. 당 혁신위와 대선평가위원회가 최근 공식 활동에 착수하면서 혁신안 마련 및 대선평가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현재 당 안팎의 최대 관심사는 당내 차기 리더십이다. 이에 따라 8월까지 열기로 한 차기 전대의 방식과 지도체제를 둘러싸고 워크숍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앞서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현행 집단지도체제에서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지도체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개진된 상태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과 당의 존립기반인 호남에서의 지지 회복 방안 등도 집중 거론됐다. 또 이번 워크숍은 인사청문정국 가운데서 열리는 만큼, 국민의당의 인사청문 대응 전략도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당은 14일에는 남북 출입사무소와 통일전망대에 이어 고성지역 전투 총흔탑을 참배 하고 1박2일 일정을 마무리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삼행 껌 이정현...국회서 우박피해 간담회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3일 당 대표직 사퇴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대외 행사를 열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박피해 관련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당적을 초월해 지역구에 우박피해가 발생한 여야 의원 15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전국 25개 지역에 우박 피해가 났는데 그 피해 규모가 거의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피해 지역의

여러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초당적으로 기꺼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자고 해서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탈당까지 한 뒤 총론 잠행해오다 처음으로 주최한 대외 행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한국당 복당 결심 시점에 대해서 “지금, 당분간은 전혀 생각이 없다”면서 이날 행사에 대한 정치적 의미 부여에 도전을 그쳤다. /연합뉴스



#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무약 법무법인 지산]**

**NPL채권 매입하여 투자 수익에 참여하실 분**

- ▶ 총 매입금액 : 11억원
- ▶ 1인 2,000만원 이상
- ▶ 투자금 회수기간 : 6~8개월
- ▶ 근저당설정 조건
- 채권 물건지는 투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